

한달 넘게 '가마솥' ... 인명·재산피해 '눈덩이 처럼'



그늘 아래에서 휴식 취하는 노인



더위를 식히고 있는 아이들



저수량이 줄어든 전주 기차저수지



폭염이 지난 뒤 우산을 쓰고 거리를 걷는 시민들

지긋지긋했던 폭염이 한풀 꺾이면서 한 달 넘게 전북지역에 내리쬐던 폭염특보가 모두 해제됐다. 사실상 가마솥 더위가 종지부를 찍은 것이다. 지난 26일 전북도와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기록적인 폭염'이라 불릴만큼 올 여름은 더위가 기승을 부렸고 이로인해 도내에서는 인명·재산피해가 속출했다. 더욱이 폭염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가뭄이라는 또다른 피해가 드리우고 있다. 이에 폭염이 전북에 남긴 상처들을 정리해본다.

▲ 한달 넘게 이어진 폭염
전북의 폭염(낮 최고기온 33도 이상)은 지난달 8일 처음 시작했다. 당시 정읍의 낮 최고기온이 33.3도까지 오르면서 올해 처음으로 폭염특보가 발효됐었다.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전주와 부안 등 다른 지역들도 7월 중순을 전후로 폭염특보가 내려졌다. 이후 폭염특보가 전면 해제된 지난 25일까지 낮 최고기온이 35도에 육박하는 폭폭 째는 무더위가 이어졌다. 올 여름 폭염일수는 정읍이 35일로 가장 길었고 전주가 32일·남원 30일·임실 29일·부안 28일·고창 24일·순창 20일 등이다. 폭염일수가 길었던 정읍과 전주·남원 등은 7월 말부터

열사병·탈진·경련 등 온열질환자 120명 발생
가축 145만1429마리 폭염 이기지 못해 폐사
무주지역 사과농가 230곳·김제지역 인삼 피해

불과 며칠을 제외하고 최근까지 한달 넘게 폭염이 이어진 것이다. 낮 시간 동안 폭염이 지속되면서 밤에도 무더위가 이어지는 열대야일 최저기온 25도 이상) 현상도 나타났다. 전북의 열대야는 지난달 4일 정읍에서 처음 시작됐으며, 이날 현재까지 열대야일수는 전주 17일·정읍 15일·군산 15일·부안 10일·고창 5일 등이다. 기상지청은 현재까지 폭염과 열대야일수와 관련된 연도별 분석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올해 여름이 기상관측 이래 손에 꼽힐 정도로 무더운 날씨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전주기상지청 관계자는 "아직 여름이 다 지나지 않은 만큼 앞으로 폭염과 열대야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며 "지난 18일까지 전주지역의 폭염일수가 기상관측 사상 다섯 번째로 길었던 것으로 파악돼 올해 여름이 유난히 무더운 날씨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가축폐사·원자 피해 '눈덩이'
장기간 지속됐던 폭염은 결국 인명·재산피해로 이어졌다. 전북도가 잠정 집계한 폭염 피해 상황을 보면 다행히 사망자는 없지만 열사병과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자는 무려 120명이나 발생했다. 이는 최근 5년(2011년~2015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온열질환자(254명) 통계로만 봐도 많은 환자가 발생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폭염으로 인한 가축 농가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가축 145만1429마리가 폭염을 이기지 못해 폐사했다. 축종별로 보면 닭이 138만2888마리로 가장 많고, 오리 4만 5257마리, 메추리 2만마리, 돼지 3284마리 등이다. 폭염으로부터 농작물도 피해갈 수는 없었다. 무주지역 사과농가 230곳(35ha)에서 일소피해를 입었다.

지속적인 폭염 및 고온으로 인해 사과 표면이 검어지고 쓸쓸한 맛이 나 상품가치가 떨어졌다. 김제지역에서는 11.8ha에서 인삼 피해가 발생했는데, 토양이 메마르면서 잎줄기가 고사했다. 도는 오는 29일까지 농작물 피해조사를 실시해 복구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 이제는 가뭄 걱정
폭염이 지속되고 비까지 내리지 않으면서 '가뭄'이 엄습해오고 있다. 최근 2개월간 전북지역 강수량은 평년 대비 61% 수준인 587mm, 저수량은 평년 대비 72% 수준인 3억 7700만톤이다. 도는 모내기 이후 본답 급수가 완료되는 다음달 20일까지는 농업용수 공급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빗물에 의해서만 벼를 재배할 수 있는 천수답과 수리시설을 구축하지 않은 밭 등에서 가뭄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가뭄이 해소될 때까지 가뭄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지역별 가뭄 현황을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또 저수지 제한 급수, 하천 유지용수의 방류 최소화 등을 통해 저수량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뉴시스

국립전주대학교
유네스코 음식향의도시

전주, 한눈에 반하다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